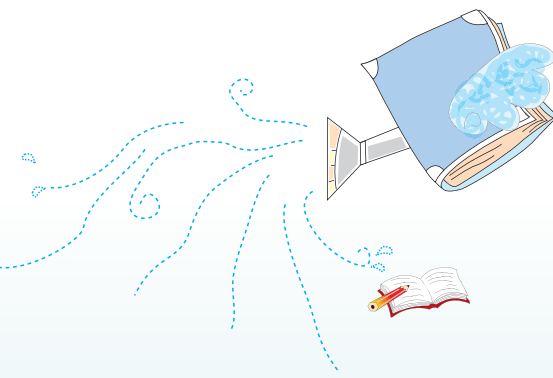


현대불교와 불서총판운주사가 함께하는

불서도서 BEST 12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과
현불샵 (02-2004-8213)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최상승해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정혜불이의 최상승법문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고목 지음 | 478쪽 | A5 | 값 17,000원 | 도서출판 밀양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의 세계

한글시대 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Mind-Only Science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의 세계는 한글과 영어를 통해 유식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교재이다. 유식학은 일상속으로 마음과 진리와 과학을 조화롭게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지혜의 보고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상응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 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논서이자 수행서를 만나다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 298쪽 | A5 | 값 12,000원 | 도서출판 밀양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빠알리 경전, 한 권으로 이해하라!



불교경전 중에서도 원전은 '빠알리 경전'이다. '빠알리 경전'은 지계 제자들의 암송을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모두 이 빠알리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경전에서는 위대한 영적인 힘을 지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마음을 혼드는 수많은 감명 깊은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뇌하는 부처님의 진솔한 모습, 중생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연민 등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경전은 오직 빠알리 경전뿐이다.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역자 일아스님은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에서 <빠알리 경전 속 에 나타난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학위 논문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빠알리 경전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빠알리 경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간단, 소박하고 순수하며, 들으면 곧바로 이해가 되는 점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일아 역음 | 양장 | 752쪽 | A5 | 값 28,000원 | 민족사

그래서 사랑입니다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진 해온 한 법사의 글 모음집



머리맡에서 글쓴이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글, 실득하기보다 가슴으로 안아 주는 글, 꾸밈없이 전술한 글을 쓰고 싶었다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들은 그동안 부처님께 매달리며 매일같이 편지로 보냈던 글들을 모은 것으로 세상과 단절된 이 공간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애쓰는 많은 장병들에게 아침마다 인사하며 나뉘던 내용들이다.

혼자 걷는 사람
좁은 길, 험한 길, 아픈 길을 걷는 이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남기신 채운으로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겠습니다.
아침같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형지 지음 | 형지 그림 | 288쪽 | B6 | 값 13,000원 | 참글세상

바람이 지은 집 절

산과 산에 깃들어 있는 절집을 만나다!



한번쯤 지친 일상을 접고 산을 찾기에 알맞은 계절이다. 산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선 채로 우릴 맞지만, 산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기 일쑤다. 탐욕이 빛이내는 세상은 늘 불편하다. 산으로 가는 길은 한 번쯤은 현실에서의 부대낌을 내려놓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다. 휴식과 재충전, 혹은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다. 하지만 때론 변장한 마음만 더욱 일으킨 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윤재학의 신작 '바람이 지은 집, 절'은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줄 만큼 삼엄한, 산과 산에 깃들어 있는 절집에 대한 책이다. 굳터기 없이 맛깔나는 글과 글만큼이나 정제된 사진을 감상하는 맛도 이 책이 주는 커다란 즐거움이다.

윤재학 지음 | 정정현 사진 | 248쪽 | 규격외 | 값 12,000원 | 우리출판사



공검인 空劫人 한국의유마백봉거사와제자들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의 생생한 언행 기록한 선어록을 8년 여의 자료조사와 인터뷰로 되살아낸 스승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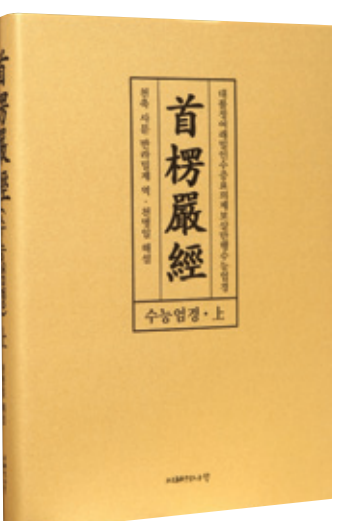
이 책은 백봉 거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열한 명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와 녹취, 비디오 촬영에는 1년 반이 걸렸지만, 각자의 수행기 작성 등 자료조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8년간의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결실의 바로 이 책이다.

백봉 거사의 감동 깊은 구도기와 깨달음,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은 제가 불자를 비롯한 한 출가 수행자에게도 의미심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백봉 거사 문화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제가 수행자들의 각고의 노력,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화두 타파와 깨달음, 스승의 인가(또는 인정)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의 마음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운초 지음 | 부분 일러 | 440쪽 | A5 | 값 16,500원 | 비움과 소통

수능엄경上

현재의 그 과학 속에 없는 답을 모두 수록한 진정한 과학의 백과사전!



인류의 머리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난해한 문제들을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모조리 밝히고 있는 경전이 '수능엄경'이다. 인간 고뇌의 근본 문제는 전부 마음에 있습니다.

신혼이라 저저하거나 성인聖人이라는 분들이 수없이 왔다 갔으나 그 마음의 비밀을 밝힌 분은 오직 석가세존뿐이다. 세존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그 마음으로부터 세계와 중생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명쾌하게 밝혀냈다. 저 많은 성서나 경전 중에서도 불경인 '수능엄경'이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지혜의 성전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전의 원제명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제보살만행수능엄경

천영일 지음 | 양장 | 278쪽 | A5 | 값 20,000원 | 지혜의나무

산문의 향기

수행자의 만행을 통해 인생의 한 방향을 제시하며 삶의 지혜를 느끼게 해 주는 책!



오늘 날 각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자아(自我)를 넘어 대 자유를 향한 한 구도자의 삶이 한 줄기 청량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이 책에서 저자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만행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불교 법문이나 선문답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혼 혼한 삶과 에피소드 등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도록 예제가 형식으로 풀었다. 때로는 선사나 경전의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산문의 고행과 만행, 수행과정 등에서의 이야기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지 않고 정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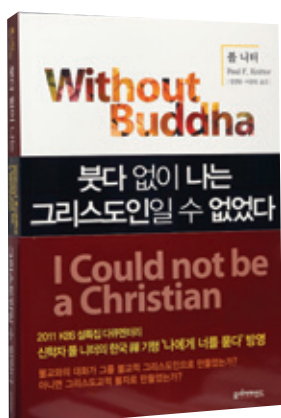
각 글들의 이야기 말미에 느낀과 회향의 마음을 표현하여 우리들의 삶에 지혜의 향기로 가슴을 울려 주며 삶에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있기에 가볍게 읽으며 마음을 다스려 보기에 좋은 책이다.

제운 스님 지음 | 양장 | 259쪽 | B6 | 값 12,000원 | 지혜의나무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불교와의 대화가 그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질문이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느껴질 때도 있다. 내가 불교에서 배운 것, 또는 불교의 빛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교 믿음들을 이해하고 해석한 방식이 여전히 그리스도교 경전 및 전통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다시말해서,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잔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2011 KBS 설특집 다큐멘터리 신학자 폴 니터의 한국 禪 기행 '나에게 너를 묻다' 방영
폴 니터 지음 | 정경일 역음 | 401쪽 | A5 | 값 19,000원 | 클리마마인드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한 권으로 읽는 쌍웃따니까야



이 책은 한국불교리성전협회의 쌍웃따니까야 전집의 2889개 경에서 발췌한 180개 경전을 모은 것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수행과 교리와 관련된 58개 경전을 추가하였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웃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주로 만들었다. 각 경전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편집하여 생동감과 현실감을 높였으며, 각 주제들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과 고민들로 구성하였다

전재성 지음 | 전재성 역음 | 665쪽 | A5 | 값 30,000원 | 한국불교리성전협회

신들과 인간의 스승

한 권으로 읽는 디가니까야



이 책은 디가니까야의 34개 법문에서 9개의 법문을 가려 뽑은 선집으로, 부처님 당시의 64개의 사상적 흐름을 소개하는 긴 법문에서부터 초기불교 수행의 바이블인 새긴의 토대의 큰 경, 즉 대법치경이나 완전한 열반의 큰 경인 대만열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가니까야 앤솔로지 지음 | 전재성 역음 | 622쪽 | A5 | 값 30,000원 | 한국불교리성전협회